

재난을 넘어 연대로 만나는 여성노동자

# 113주년 세계여성의날

## 왜 여성의날에 ‘빵과 장미’일까요?

1912년 미국의 메사추세츠 로렌스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저항하며 파업을 벌였다. 가난한 이민자가 많았던 그 곳에서 외친 것은 ‘빵과 장미’였다.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행진. 빵과 장미의 투쟁은 수개월간 진행되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하느라 돌볼 수 없었던 아이들은 배고픔과 질병에 노출되었다. 이에 파업중인 노동자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위탁 가정운동이 전개되어 돌봄으로 파업을 옹호하는 연대를 하기도 하였다. 빵과 장미의 투쟁 또한 경찰과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존엄을 위한 투쟁을 계승하기 위한 투쟁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 3.8여성의 날, 역사적 유래와 의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외치며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섰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먼지를 마시며 쉬지 않고 일을 하며 국가 경제에 헌신할 것을 요구 받으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없었다. 그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이자 시민이고 인간이기에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 수 없다며 용감하게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을 기억하며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는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정하였다. 그 결과 1911년 첫 번째 ‘여성의 날’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날은 우리의 날이다.”라고 외쳤다. 거리 곳곳에서 시위가 진행되어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유엔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고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1977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각 국가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1908년 이후 67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지켜내면서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결과였다.

이처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다가 매해 ‘세계 여성의 날’에 그 요구를 모아 세계적으로 연대하는 날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이어왔다.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





## 한국의 '세계 여성의 날'

- 1919년 3·1운동 이후 활발해진 민족해방운동의 분위기 속에 결성된 여성노동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가 1925년 '국제무산 부인데이' 기념 행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행사가 금지당하자, 대신 '국제 부인의 날'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의 시작이다.
- 1927년 조선여성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이 '국제무산 부인데이' 기념 대강연회 공동 개최했다.
- 1947년 해방 이후 결성된 조선부녀총동맹은 "3월 8일을 조선 부녀해방투쟁의 기념일로!"라는 강령을 내걸었다.
- 1985년 그 이후 독재정권의 통제로 수십 년간 여성노동단체 활동이 없다가 '세계 여성의 날'이 복원되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톱보이 부당해고반대 투쟁, 결혼퇴직제 반대운동,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반대운동, 금융권의 여행원제 폐지운동 등을 벌였다.
- 1989년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고 실천을 결의하는 여성노동자대회가 시작된 것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 지역에서 지역노동조합협의회와 여성국과 여성노동자회가 같이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 1993년에서 1995년까지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전국업종노동조합의,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같이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였다.
-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된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매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공유하고 그 해결을 요구해 왔다.

## 2021년 '3·8 여성의 날', 사업장과 인종을 뛰어넘는 여성노동자 연대 만들기

2021년 '여성의 날'은 여성노동자들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성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공유하고 연대투쟁을 만들어가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세계 여성노동자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더욱 악화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방역과 필수노동으로 동원된 노동자들, 여성에게 더 전가되는 돌봄노동 문제, 그리고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차별 문제, 나아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과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동자 간의 연대투쟁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발을 내디뎌야 한다.

